

Table of Contents

I. 삼기능체계로서의 동양천문학

II. 동아시아 삼기능체계의 변천

III. 동양 천문학에서 663년의 의미

IV. 663년 백촌강 전투의 삼기능체계로서의
의의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48

미추왕릉 출토 금박 유리목걸이 올림피아드에서 영웅이 목에 거는 메달(곡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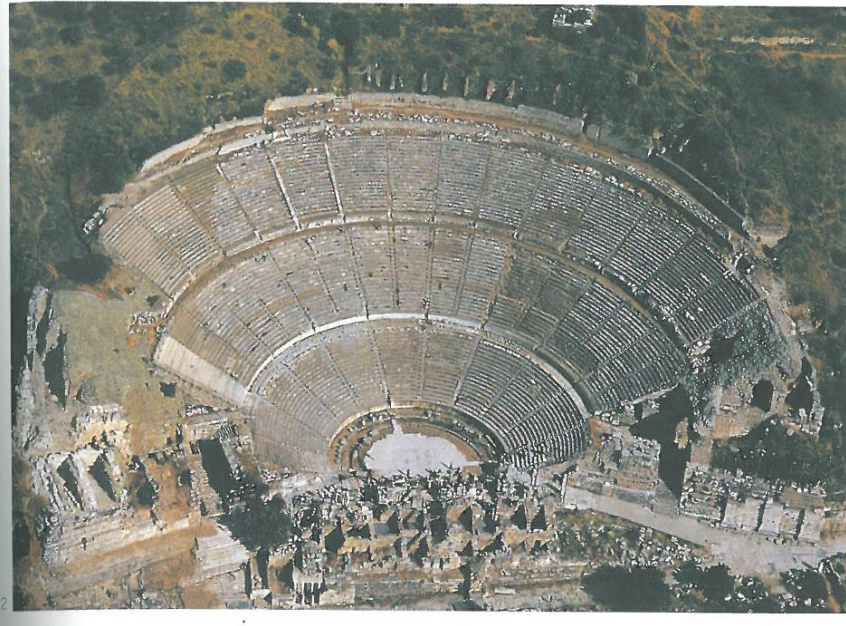


미추왕릉 출토 금박 유리목걸이 올림피아드에서 영웅이 목에 거는 메달(곡옥)이다.

금으로 만든 화려한 베클 용이 꿈틀거리는 문양은 샤머니즘의 도상이다. 이집트 양식으로 추정된다. 1~2세기, 평양 석암리 9호분 출토.

박용숙, 샤먼제국 중에서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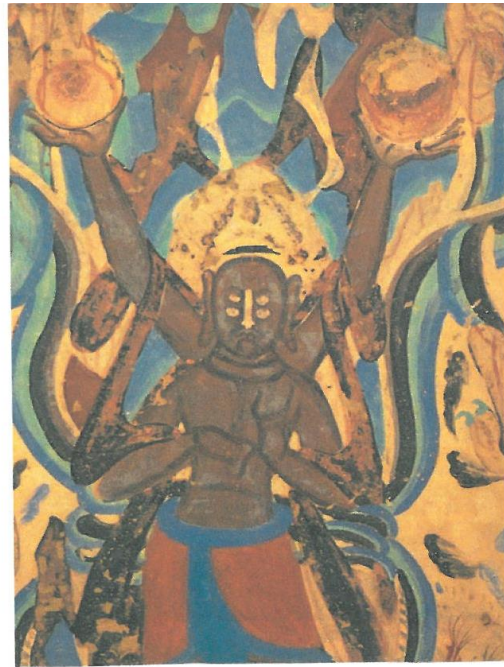


황금 장신구 왼쪽은 박트리아 실리아테페에서 출토된 고추 모양의 노리개이고, 오른쪽은 경주 노서리에서 출토된 대추와 고추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 노리개이다. 모두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영웅이 받는 장신구(금척)이다.

페르가몬 아래는 신선놀이가 열린 아크로폴리스의 원추형 대극장이다

박용숙, 샤먼제국 중에서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가면을 쓴 신상 샤머니즘에서 불교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대의 신상들이다. 위는 시비왕의 본생도로 북량 시대의 것이다. 제275 막고굴 벽화. 아래 그림은 서위 시대의 아수라 신상으로, 눈이 네 개인 것은 방상씨 가면임을 뜻한다. 들고 있는 것은 진천뢰(폭탄)이다. 제249 막고굴 천장 서면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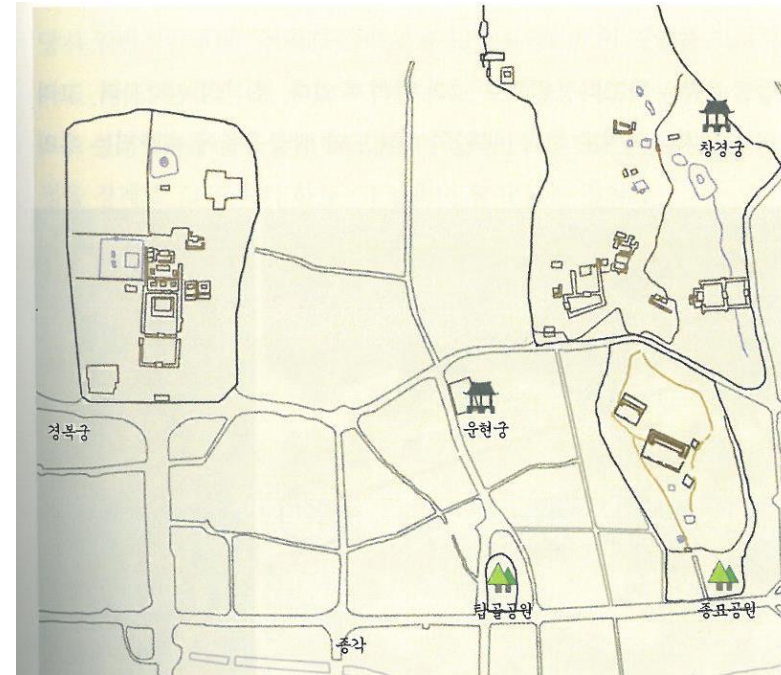
〈무신도〉 샤먼의 신분을 나타내는 장검, 언월도(달), 삼지창(태양)을 들고 있다. 1800년대.

박용숙, 샤먼제국 중에서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 3원이란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을 말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 목판본의 일부분에 3원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다.



◀ 경복궁, 창덕궁 · 창경궁, 종묘 부근의 현재 지도. 38쪽의 사진에서 3원의 배치와 그 구도가 닮았다.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중에서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원본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을까?

조선 석각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하단부에 적힌 측정값으로 추론한 제작 연대는 기원 원년을 전후한 100년 정도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고구려에서 관리되었다면 측정값 또한 시대에 따라 갱신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최종 갱신 연대는 고구려 건국 초기 또는 그 이전이 되어, 고구려에서 있었을 별의 위치에 대한 측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지금의 평양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어떤가? '평양'은 현재의 대동강 유역의 평양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관측지 위도는 일반적으로 중간의 주극원을 근거로 평양의 위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으로 그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극원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주극원의 가장자리에서 서로 마주 보는 두 별인 왕랑 별자리(카시오페아 위치의 중간 별에 해당)의 안쪽 별과 북두칠성의 세번째 별의 각거리를 측정해 보면, 주극원의 반지름은 33도 정도로 나온다. 북극성의 고도가 곧 관측자의 위도가 되므로 관측 위치는 33도 부근이 되는데, 현재 평양의 위도는 39도로 6도의 차이가 있어서 관측지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3도는 제주도의 위도에 해당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볼 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주극원은 고조선의 전체 강역 내에서 연중 관측이 가능한 하늘의 범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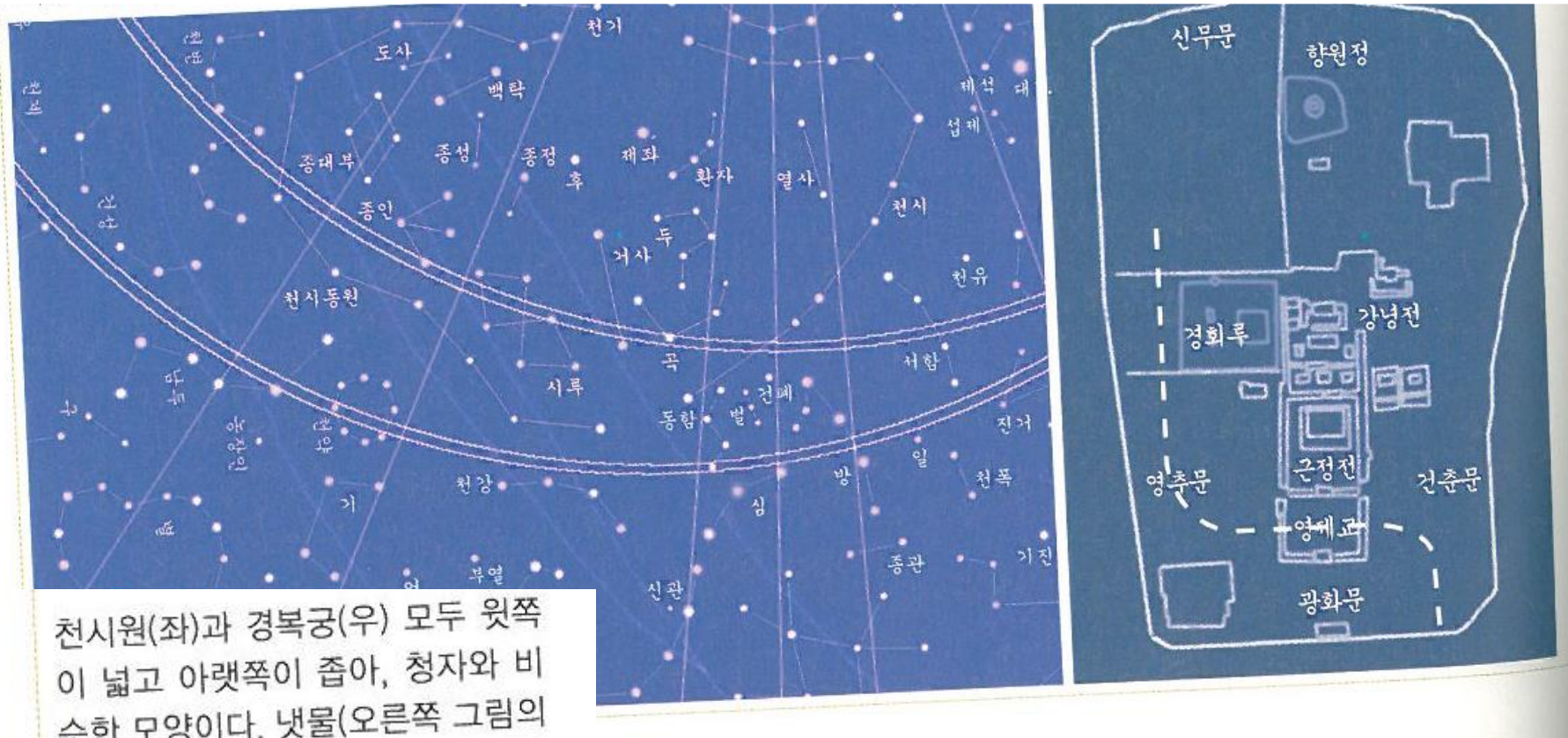
결국,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주극원은 측정 당시의 평양이 대동강 유역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 주지 못한다.

《규원사화》와 이순지 코드

《천문류초》는 조선 세종 때 지어진 천문 설명서다. 여기서 《천문류초》를 저술한 이순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이순지는 태종 6년(1406년)에 태어나 세종 9년(1427년)에 문과에 급제, 세조 11년(1465년)에 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지금의 서울 시장에 해당되는 한성부윤을 비롯한 여러 관직을 거쳤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로, 원나라 천문학을 채택한 《칠정산 내외편》을 저술하여 역법을 정비했고, 자격루, 혼천의 등 기기의 제작을 담당해 조선 초기의 천문학을 당대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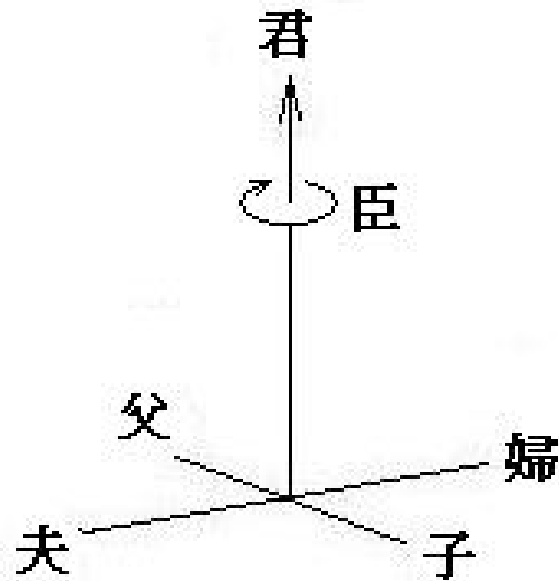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천시원(좌)과 경복궁(우) 모두 윗쪽이 넓고 아랫쪽이 좁아, 청자와 비슷한 모양이다. 냇물(오른쪽 그림의 점선)이 경회루 왼쪽을 돌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흐르게 한 것은 그 흐름을 은하수에 맞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정태민,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역사 중에서, 하늘의 시장 경복궁

동아시아 삼기능체계는 입체오행과 삼강오륜의 형태로 내재화함



토-중심오행

부(父)↔자(子)가 수직적으로 대응하고
부(夫)↔부(婦)가 수평적으로 대응하면 중심에 군(君)이 오르게 되고 군(君)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신하(臣下)가 있어 보필해야만 오래 그 위(位)를 보존할 수 있다는 오행의 원리

박용규, 입체오행중에서,